석유화학, 수익성 우려된다!

석유화학 시장이 예상 밖으로 양호한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

2014년 가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40달러 중반으로 폭락할 때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으나 2015년 들어 수요부진에도 불구하고 정기보수를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국제유가가 60달러 안팎으로 급등함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3-4%에 불과하나 2015년 1/4분기에는 7-8%를 기록했고 일부는 12%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틸렌을 필두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에틸렌은 톤당 1400달러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함으로써 나프타와의 스프레드가 850달러 수준에 달해 손익분기점 스프레드 350달러를 500달러 이상 초과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프로필렌도 900달러 수준으로 올라섬으로써 에틸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PE를 비롯해 PP, PS, ABS, PVC 등 합성수지는 원료가격 폭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MEG, AN, CPL, PTA 등 합섬원료도 수익성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합성고무는 부타디엔이 1400달러 수준으로 폭등함으로써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유분에서 합성수지, 합섬원료를 수직계열화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구조상 기초유분의 수익성 호조가 전체 사업의 수익률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수직계열화를 완비하지 않은 국가들과 차별화가 가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 석유화학의 수익성 호조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정책에 반발해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치프라스 정권이 유로 탈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강수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시돼 유럽 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해 60달러에 턱걸이한 것으로 보아 8-9월에는 50달러를 버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사태의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서두르면 국제유가가 다시 40달러대로 곤두박질칠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다.

이라크가 원유 수출을 하루 35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이란이 100만배럴을 추가 확대하면 OPEC의 생산쿼터 3000만배럴이 무너짐은 물론 3300만-350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고, 여기에 6월부터 미국의 셰일가스 · 오일 시추리그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도 봄철 정기보수 시즌이 마무리돼 풀가동체제를 준비하고 있고 8월 이후에는 정기보수가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급과잉 확대가 불가피하며, 6월부터 중국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까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에 그치지 않고 석유화학 수급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급락과 수급악화의 협공을 피해갈 수 있는 면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 · 전제를 금합니다.